

## 처음에는 탐닉하고 그 다음에는 부끄러워 하는 의사들 흡연 감소일로

세계보건기구에서는 1993년 세계금연의 날 주제: "보건서비스: 담배없는 세계를 위한 창문"으로 정했다. 이는 보건 관계자들과 보건의료계 지도자 및 증사자들이 담배연기없는 보건서비스의 필요성을 인식, 금연을 시행하여 일반인에게 모범을 보이며, 또한 환자 와 의료진들을 수동적흡연의 피해에서 보호하고, 더 나아가 바로 지금이 담배없는 사회를 향하여 나아가야 할 때인 것을 일깨우는 데 목적이 있다.

보건전문인들의 흡연이 일반적으로 감소되는 패턴이라는 좋은 뉴스가 있다. 이것이 흡연으로 인한 결과로서의 고통과 사망을 그들이 직접 눈으로 보기 때문인지 아니면 그들의 교육과 훈련이 니코틴 중독을 더 잘 극복해낼 수 있게 했기 때문인지는 아직 분명치 않다.

이러한 패턴은 분명히 세계보건을 위해 고무적인 일인데, 왜냐하면 일반대중들은 사회에서의 좋은 본보기로서 의사, 치과 의사, 그리고 심지어는 의과대학 학생들까지도 주시하기 때문이다.

흡연의 해독에 대해서는 수년간 어디

에나 잘 알려져 있고, 의사들의 흡연율은 30, 40년 전에 50%를 상회하던 것이 지금은 10% 정도까지 극적인 감소를 보여준다. 믿을만한 자료에 의하면 일부국가에서는 아직도 의사들의 흡연율이 일반인구에서보다 높은 나라도 있다. 이태리, 룩셈부르크, 일본, 포르투갈 그리고 스페인인들이 이 범주에 속하는 나라들이다.

18개 유럽국가들에서 의과대학생들의 평균흡연자 비율은 영국의 20% 정도에서 폴란드의 50%까지의 분포를 보인다.

아프리카, 중동 그리고 아시아국가들에서는 여자 의대생의 흡연율이 조사된 모든 나라에서 흡연율은 20%를 밑돌았다. 남자 의대생에서는 싱가포르의 4%에서부터 중국 파안진의 68%까지의 범위 사이에 있음이 보고되었다.

구강보건을 지도하는 치과 의사는 환자의 흡연형태에 대해 자연스럽게 상담의 역할을 해왔다. 또한 흡연자에게 쉽게 접근, 예방차원의 체계적인 흡연상담을 할 수 있다.

# WORLD NO-TOBACCO DAY

31 MAY 1993

치과의사는 치료기간 동안에 담배회사에 의해 희생되어서는 안된다는 것과 가족 건강의 위험과 담배의 경제적 손실을 피하고 냄새맡고, 맛보며, 호흡하는 데 있어서 금연함으로써 얻는 이익 등을 인식시키는데 큰 도움을 준다.

전세계적으로 매년의 통계를 보면 극히 적은 사람만이 치과를 찾아오고 있지만 몇몇 나라에서는 인구의 반 이상이 치과를 찾기도 한다.

치과의사가 비흡연자인 경우에 이것은 환자와 흡연상담시 성공할 수 있는 인자로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

후진국에서는 치과의사의 수가 적고 치료받는 계층도 국가의 행정부, 상업 및 언론에 종사하는 자들이다. 그런데 이런 자들에 대한 금연지도의 충고나 성공한 예들은 일반인들의 흡연태도와 지식에 커다란 도움을 준다.

또한 태어난 곳과 교육정도에 영향을 받아 담배소비의 위험률이 잘 이해되고 알려진 곳에서는 낮은 수치의 흡연율을 나타낸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의과대학생들의 흡연형태는 어떠한가? 이들의 흡연율은 의료전문인의 미래로 장래를 추측할 수 있는 지표로써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10대 후반기와 20대 초에 담배에 중독되지 않는다면 성인이 되어서도 흡연가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개략적인 통계는 의료 및 보건전문인들이 아직도 가야할 길이 멀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정질병의 원인으로서의 흡연에 대한 무지가 아직도 존재한다. 예방수단을 부분적으로만 이해하고 있을 수도 있다.

1993년 5월 31일 세계 금연의 날은 흡연의 해독에 대해 일반대중에게 알리고 경고하는 그들의 의무를 더욱 충실히 이행하도록 다수의 보건의료전문인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담배연기 싫어요  
맑은공기 원해요**